



가정통신문

남원용성중학교
주 소 : 남원시 춘향로 73
(<http://www.nwys.ms.kr>)
교무실 : (063) 633-4549
팩 스 : (063) 631-4734

부모님을 위한 자녀와의 의사소통 안내문

청소년기인 자녀들은 부모님이 어떤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조언을 할 때 귀 기울여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벽에 부딪힐 때, 자녀의 고민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 다음의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 부모로서 '경청'하려는 마음이 자녀에게 점차 전달되어, 마침내 자녀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1.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녀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자녀가 무언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자녀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부모에게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밀린 일 처리를 잠시 놓아두고 자녀에게 집중해 주세요. 이것이 자녀에게 여러분이 경청할 준비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2. 자녀와의 대화 시 상냥한 어조로 대화해 보세요.

존중은 존중을 낳는 법입니다. 이는 의사소통 시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상냥한 어조로 자녀와 이야기해 보세요. 거칠거나 통명스러운 어조는 자녀의 적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부드러운 어조로 자녀에게 집중하여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한층 친밀해질 것이며, 더 나아가 자녀들은 부모님을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밀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3. 판단하는 것을 피하세요.

우리는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행동을 하거나 비판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는 성인인 부모도, 청소년인 자녀도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부모 세대에서 경험 혹은 존재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때로 부모에게는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자녀를 판단하기보다 자녀의 입장에서 유연하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시도는 자녀로 하여금 판단 받고 있는 것이 아닌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4. 어떤 이야기도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주세요.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립니다. 이때 자녀를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비웃는 행동은 자녀에게 깊은 상처로 남는다는 점, 그리고 이는 자녀의 일생동안 자녀를 괴롭힌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야기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하여 질문할 때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어떠한 생각이나 감정도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신의 도덕성, 결혼관, 직업관, 공부, 시간, 돈, 그 밖에도 삶에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 및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및 느낌들이 부모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화를 시도할 때, 부모님은 가정 먼저 '경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녀의 의견이 부모의 시각과 다를 수 있지만, 대화의 시작은 잘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녀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 낸 후 부모님의 의견 및 솔직한 생각을 전달해 주세요. 이와 같은 과정은 비록 여러분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전달해 주는 의사소통의 방법입니다.

2019년 11월 22일

남원용성중학교장